

진정한 저널리즘의 주역을 위하여

기본기로 무장, 변화하는 패러다임 인식 '절실'

1 요즘같이 정보의 범람 시대에는 정보의 엔트로피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언론과 기자의 책임은 더 크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와 사회의 흐름인 패러다임을 인식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든 어떤 분야이든 기자는 확실한 정체성을 찾아야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된다.

과 학의 한 지류에 속해있던 IT가 90년대 이후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류로 부상하면서 IT 관련 전문지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역사의 시발점이 외국으로 비롯된 만큼 짧은 역사를 지닌 국내 IT가 몇몇 분야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기록을 남기는 발전을 이루기까지 국내 IT 전문지가 알게 모르게 큰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자리매김에 이르기에는 많은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왜 전문 기자여야 하는가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자'라는 직업이 주는 통념적인 가치가 '기자의식'을 자위하도록 하지만 국내 IT 전문지의 실상은 기자가 참으로 고된 '직업군'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무엇보다 몇몇 선진국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국내 출판 시장 규모는 매체를 경영하는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기자들의 대우나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간혹 매체의 영향력이나 회사의 경제적인 지표로 인해 기

자들 스스로도 전문지기자의 비전을 놓고 고민하는 것을 보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지는 여전히 중요한 미디어로서 산업의 동반자로 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전문성이다. '전문성'이야말로 기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컨퍼런스를 참석하다보면 외국 기자들의 높은 전문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컨퍼런스의 대부분 참석하는 기자들 중에 15년 이상 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눈인사를 하거나 옆 자리에 앉게 되어 명함을 주고받으며 간단한 소개를 하다보면 그들의 경력은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주요 제품의 발표시에 쏟아지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기자 이전에 엔지니어가 아니었나할 정도로 깊이가 있다. 바로 그들의 날카로운 '전문성'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자극제가 되는 것이며, 그 전문기자의 명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1세기의 10년이면 예측 불허의 시간이다. 가장 성장속도가 빨랐다는 IT 산업에서 믿어왔던 여러 가지 법칙들이 깨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발전 주기는 시시각

각으로 단축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규명하는 시대가 아니라 시작과 끝에 대한 예측불허,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인간의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자는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판단으로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 기사화해야 한다. 또한 순간마다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전개되는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나도 분석하고 보도라는 형태로 대중에게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IT 분야의 전문기자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패러다임을 읽어야 한다

요즘같이 정보의 범람 시대에는 정보의 엔트로피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언론과 기자의 책임은 더 크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와 사회의 흐름인 패러다임을 인식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역사의 방향과 사회의 흐름을 독자와 대중에게 메시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오랜 경험과 훈련된 감각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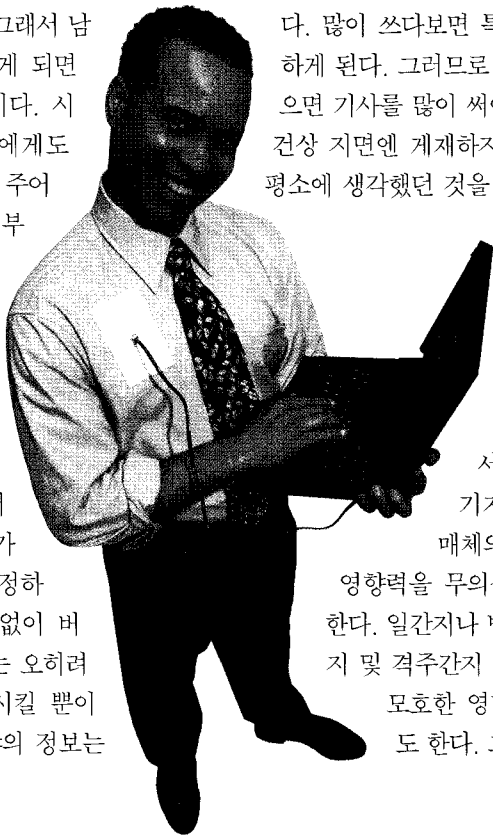
기자 스스로 선천적인 감각이 있다면

좋으나 그러한 감각이 부족하다해도 기자는 직업상 다양한 기호를 터득하고 체화해서 사회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지 기자는 분석·해설·심층 보도를 위해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취재를 해야 한다. 사회에 다기능 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익집단의 전용 기호를 해독 패러다임을 읽어야 한다. 누구보다 앞서서 뛰어넘어야 하는 기자들은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4시간 준비된 기자

진실과 정확한 보도는 기사의 생명이다. 사실의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사전 준비 또한 경중을 가릴 수 없다. 이러한 준비성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자는 항상 스타트 라인선 상에 있는 단거리 육상 선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출발신호가 울리면 아주 빠른 시간에 기사를 취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자의 적은 항상 시간이다. 시간이 특종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낙종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기사는 시간 속에 있을 때만 상품가치가 있다. 시간을 벗어나면 쓰레기가 될 뿐이다. 요즘같이 정보가 24시간 생산되는 정보 범람의 시대에 있어서 기자는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남들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뒤처지게 마련이다. 시간의 군주는 전문지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능력껏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시간과 부가가치, 그것은 창조적 긴장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선별엔 상당한 수준의 안목이 필요하다. 우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빨리 결정하고 그외의 것은 미련없이 버린다. 불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시간과 정열을 낭비시킬 뿐이다. 그러나 자기 분야의 정보는



안테나를 24시간 가동하여 자료수집을 해야 한다. 기자 생활은 결국 자료 싸움의 연속이며, 자료를 수집하려면 안테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와 루머의 선별 능력 미미 또는 지연은 기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때문에 적절한 정보 마인드를 갖추어 언제 어디서 어떤 루머와 정보가 발생해도 쉽게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는 만들어진다

기자에게 있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몇 줄의 기사든, 특집이든 항상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 자신이 쓰고 있는 기사가 게재되든 안되든 매우 중요한 실전 연마기술이기 때문이다. 문장 연습과 기사작성 요령은 기자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탄탄한 문장력, 빈틈없는 기사 작성은 초년생부터 기반을 닦아와야 한다. 경력이 많아질수록 기자들의 업무량은 많아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3-4년차에 이르러서는 문장력, 기사작성 등 기자가 갖춰야 할 제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미 나쁘게 길들여진 자신의 스타일은 바꾸기란 쉽지 않다. 기자는 정보가 있는 한 기사를 계속 써야 한다. 쓰는 권리를 만끽하길 바란다. 스스로 정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제 1의 경계선이다. 많이 쓰다보면 특종도 많이 발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자는 될 수 있으면 기사를 많이 써야 하며, 비록 여건상 지면엔 게재하지 못한 글이라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기록, 역사의 진실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다. 기자는 죽어도 기사를 써야 한다.

흔히들 기자의 서열을 나누거나 기자들 자신조차도 매체의 종류와 회사의 영향력을 무의식중에 구분하곤 한다. 일간지나 방송 그리고 월간지 및 격주간지 등을 비교하면서 모호한 영향력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의 자



질은 매체나 회사의 영향력보다는 본인의 의식수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끈기와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기자는 오늘만을 위해서 쓰는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독자들을 상대로 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매체의 핵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과 역사의식, 사회의식 없이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자의 자존심'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자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권력보다는 명예, 명예보다는 진실 쪽에서야 하는 기자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 자존심을 먹고사는 기자란 쉽지 않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라는 행복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자에게겐 회사의 아름다운 비전제시와 그에 부합되는 동기 유발만 시켜주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자 정신인 것이다. 기자에게엔 비전 이상의 당근은 없다. 바람직한 비전이 있으면 목숨을 내걸고 자기 비전을 쫓아낸다.

진정한 저널리즘

어느 시대든 어떤 분야이든 기자는 확실한 정체성을 찾아야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된다. 또한 기자의 자긍심은 자신이 속한 매체나 회사의 영향력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 자신의 진정한 저널리즘을 얼마나 가꾸어가는가에 있는 것이다. 이제 막 IT 전문지의 기자로 입문했거나 이미 몇 년의 경력을 쌓았다면 진정한 저널리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KICRA**